

“영암군 지역사회, 교육발전특구 위해 뭉쳤다”

18개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공동 대응

영암군 지역사회가 교육발전특구를 위해 뭉쳤다.

영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가 최근 군청에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하나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교육 활성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혁신,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이다.

영암군과 영암교육지원청, 지역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지역협의체는, 영암형 교육모델의 초석이 될 교육 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위한 것.

협약에 따라 지역협의체 소속 단체들은 ‘교육 발전 전략 수립 및 아

이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지역교육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사회와의 역량을 집중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 ‘혁신수도 영암’이 ‘교육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한 지역사회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기자



영암군 지역사회가 교육발전특구를 위해 뭉쳤다. 영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가 최근 군청에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목포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목포시가 연중 무휴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 공공심야약국은 유동인구가 많고 심야시간 다중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원도심쪽에는 목포보건소 사거리 인근 ‘로템온누리약국’(산정동 소재), 신도심쪽에는 이마트 인근 ‘비타민 약국’(옥암동 소재)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09:00~24:00 까지이며(심야 연장시간 : 2시간 (22:00~24:00)), 2024년 한 해 동안 국경일·공휴일에 상관없이 1년 365 일 휴일 없이 운영한다.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9천394명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9천257건, 조제(처방) 27건, 전화상담 110건으로 일일 평균 26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공공심야약국은 매년 새롭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는 약사가 지정된 운영시간 동안 상시 상주해야 한다. 시는 심야약국 운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강진군 ‘푸소’, 지방소멸대응 새로운 해법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 인구 산정 결과에서 강진군의 ‘푸소(fuso)’가 생활인구 증대 사업 관련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산정한 행안부의 발표는 이번이 최초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인구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 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 주민등록정보와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 통신3사의 이동통신정보를 가명으로 결합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 강진 푸소는 지자체 생활 인구 증대 사업 사례 가운

데 ‘숙박체험’ 분야에서 농촌 민박과 농촌 체험으로 힐링하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타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강진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해소한다는 뜻으로 전라도 사투리 ‘덜 어내다’나 ‘내려놓다’ 등의 중의적인 의미로도 통용된다.

강진군은 학생푸소,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등 푸소의 주체와 테마를 바꿔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8년간 거듭 발전시켜 왔으며, 그동안 5만7천645명이 다녀가고 52억 8천245만 원의 농가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푸소의 다각적 변화를 통해, 생활인구유입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박종옥 기자

무안군, 트리티케일 채종포 확대 조성

무안군(군수 김산)은 동계 조사로 ‘트리티케일’ 채종포를 올해 5㏊로 확대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종자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종자 보급이 가능한 통상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트리티케일 채종포 2㏊를 조성해 약 8톤의 종자를 생산했으며 보급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 축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전량 보급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최초의 사료작물로 추위와 건조에 매우 강한 뛰어난 환경적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축의 활동력과 지구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옥타코사놀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이소오리엔틴이 높고, 조사료의 영양적 가치 척도 중 하나인 조단백질 함량과 가소화양분 함량이 매우

높다. 축 급여 시에도 기호성이 높아 최근 축산농가에 인기가 많다.

이번에 조성한 채종포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박명렬농업연구사가 개발한 품종인 ‘조성’, ‘한미소1호’를 생산할 계획이며 예상 생산량은 약 120㏊에 파종할 수 있는 25톤이다.

군 관계자는 “트리티케일이 축산농가들의 호응이 높아 지속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민재 기자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함평군이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3회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전라남도 내 6개

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00만 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금 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에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061-320-1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본 지원사업이 청년 부부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문수기자

신안,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팔금면에서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한 신년맞이 견기대회 행사와 연계해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신년을 맞아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돼, 보건소 전담 인력의 지도하에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했다.

건강증진 홍보관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 △워크숍은 앱 설치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활동이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홍근 기자

